

‘SOS 어르신 건강문제’

「多-이음케어」가 답이다!

고양시는 어르신의료지원확대 추진을 위해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및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多-이음케어」로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정리 덕양구보건소 방문보건팀



1 장수검진
2 사례 관리 회의
3 요리경연대회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 확대

「多-이음케어」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건강검진을 시작으로 치료, 돌봄, 사회복귀까지 전문 코디네이터가 참여하는 보건·의료·복지 통합서비스다. 이는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검진이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면서 건강검진 기회가 대폭 축소됨에 따른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다.

덕양구보건소는 2019년 취약계층 어르신 1,600여 명에게 건강검진과 암검진을 추진했으며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고가의 정밀검사, 무료수술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로 어르신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의료사각지대 어르신 통합서비스

보건소에서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건강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나 교통이 불편한 지역과 거동이 힘든 어르신에게는 직접 방문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 136명을 발견해 투약을 시작했고, 암과 간경화 등 중증질환

108명에게 정밀검사와 무료수술을 연계해 취약계층 의료비 절감에 큰 역할을 했다.

이 밖에도 덕양구보건소는 경로당, 시민건강센터, 노인복지관 등에 ‘한궁’ 프로그램을 개설해 어르신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남성 독거노인 영양개선을 위한 ‘남식당’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사례 1. 김OO(여/79)

지난 5월, 10년 전부터 퇴행성관절염으로 집에만 있던 어르신을 일산21세기병원과 연계해 양측 인공무릎관절수술을 받았고 보건소 작업치료가 집으로 방문해 재활운동을 지원했다. 이제는 혼자서도 시장을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다. 수술비가 무서워 10년 동안 미뤘던 수술을 받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사례 2. 이OO(남/75)



위암 판정 후 항암치료 중인 독거 어르신으로 수입이 없어 생활비와 의료비로 고통받고 있었다. 이에 보건소와 행정복지센터 협업을 통해 의료수급권자로 인정받았고, 안정적으로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남식당’ 프로그램 참여 후에는 위암 식단을 스스로 챙길 수 있을 정도로 의욕적인 삶을 살고 있다.

多-이음케어

대상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칩거노인, 재가 장애인, 장기 미수검자 등
내용 일반검진, 치매선별검사, 노인우울검사, 결과에 따른 맞춤형 의료·복지 연계
문의 031-8075-4075